

## 최신 ICT 이슈

### II. 기업 내에 잠자고 있는 “다크 데이터”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

- 기업의 비즈니스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가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데이터, 즉 “다크 데이터(Dark Data)”가 주목받고 있음
  - ▶ 가령, 공장이나 매장 등 사업 현장에서 가동 중인 설비나 기기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 ▶ IT 부서가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도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안 기술의 향상 및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나 실제 구현하는 곳은 별로 없음
  - ▶ 기업 내에 잠들어 있는 다크 데이터는 흔히 ‘보물섬’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기업의 경영진 및 IT 관리자들은 대개 다크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 걸림돌과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스플렁크(Splunk)’는 7개국 1,365명의 경영진과 IT 부문 관리자를 대상으로 다크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음
  - ▶ 조사 대상 7개 국가는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 중국·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3개국이었다고, 조사 대상자는 기업의 경영진과 IT 부서 관리자로 IT 비전문가와 IT 전문가를 각각 50%씩 동수로 구성했으며, 조사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음
  - ▶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서 다크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가령 IBM의 빅데이터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IBM Big Data & Analytics Hub’는 2016년 기준 기업 데이터의 약 80%가 다크 데이터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 이번 스플렁크의 조사에 따르면, 다크 데이터가 “50% 이상”이라는 응답이 60%였는데, 이 중 33%는 “75% 이상”이 다크 데이터라고 답변하였음
  - ▶ 조사 결과는 IBM의 추계보다 다크 데이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자 전체 평균은 55%로 나타나 기업 데이터의 절반 이상을 다크 데이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스플렁크의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다크 데이터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활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81%의 응답자는 기업 전체의 성공을 위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77%는 “다크 데이터의 파악이 최우선이다”라고 응답하여 현재 대부분 기업이 보유 데이터의 현황에 대한 파악과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하였음
  - ▶ 다크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대해서는 39%의 응답자가 “다크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다”는 점을 꼽았고, 다음으로 34%는 “필요한 기술들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으며, 32%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음
  - ▶ 대체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과 시스템이 모두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특히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기술을 가진 인력의 부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은 시스템 구축과 적절한 분석 도구의 도입을 포함한 데이터 활용에 근원적 장벽이 되고 있음

[표 1] 자신의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중 다크 데이터의 비중

구분	7국 평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호주
75% 이상	33%	36%	33%	42%	26%	15%	35%	36%
50% 이상	60%	63%	63%	65%	58%	44%	65%	62%
50% 미만	40%	37%	37%	35%	42%	56%	35%	38%
25% 미만	11%	11%	9%	11%	14%	9%	15%	10%

〈자료〉 Splunk, 'The State of Dark Data'

- 조사 대상 7개국 중 중국은 눈에 띄게 데이터 활용이 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응답자의 56%는 기업의 다크 데이터가 “5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 중국은 다른 조사 항목에서도 데이터 활용의 의식이 여타 나라보다 높았는데, 가령 AI(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 중국의 응답자들은 77%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 이 응답률은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비 IT 전문가였다는 점, 전체 평균 응답률인 48%보다 29%나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드라지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 중국은 “기업 전체가 AI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61%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으며, “업계 전체가 AI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직장 동료들이 AI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포함한 AI 이해도에 관한 모든 설문 항목에서 7개국 중 가장 높은 긍정 수치를 보였음
  - ▶ 또한, “AI는 과대평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중국은 37%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7개국 평균인 60%보다 23%p가 낮은 것임

- ▶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중국이 가장 높았는데, “10년 후에도 현재의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면 데이터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에 9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7개국 평균은 78%였음
- ▶ 데이터 스킬의 학습과 관련하여 “지금 배우기에는 나이가 많은가”라는 항목에 7개국 중 가장 낮은 4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스킬 학습에 임하는 자세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7개국 평균은 53%가 지금 배우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
- ▶ 스플링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AI의 도입을 포함해 중국 기업이 실제 비즈니스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표 2] 새로운 데이터 스킬 학습에 대한 의향

구분	평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호주
새로운 데이터 스킬을 가까이 배우겠다	92%	93%	93%	85%	88%	99%	89%	91%
새로운 데이터 스킬을 배우기엔 나이가 많다	53%	48%	66%	51%	51%	41%	70%	59%

〈자료〉 Splunk, ‘The State of Dark Data’

## [ 참고문헌 ]

- [1] SDTimes, 4. 30, <https://bit.ly/2J7I3h6>  
 [2] Datanami, 5. 23, <https://bit.ly/2QrLdy2>